‘고전소설과 여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전망

이 지 하 (서울대)

1. 머리말
2. 고전소설과 ‘여성’
3. 비판적 문제제기
4. 전망과 과제

1. 머리말

근래 고전소설 연구 동향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은 여성주의적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여성학계를 중심으로 한 페미니즘 열풍에 편승한 일시적 유행으로 보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를 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으나 그간의 문학연구가 남성중심적 편향을 보였던 사실을 고려할 때 최근의 여성주의적 관심은 문학연구 내부의 자체적 필요성에 의해 반성적으로 시작된 운동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실상에 부합한다 하겠다. 특히 고전소설의 경우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가 남성들에 의해 주도된 주류 문화로서가 아니라, 여성들에 의해 주도된 주변부적인 성격이 강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뒤늦게나마 활성화된 것은 소설사의 실상을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라 해야 할 것이다.

한국고전여성문학회의 발족 이후 활기를 더해가는 여성주의적 문학연구는 이제 하나의 방법론적 차원으로까지 자리매김한 듯하다. 고전소설 분야 또한 예외가 아닌데 최근에 발표되는 대부분의 논문이 소재적 측면에서건,

주제적 측면에서건 여성의 문제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양산된 논의들을 통합하고 비판적 시각에서 재정립하려는 시도는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연구자들은 각기 개별적인 목소리를 내는 데 그칠 뿐 발전적인 논쟁이 활성화되지도 않은 상태다. 이는 특별한 쟁점이 부각되지 않는 최근의 학계 동향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여성주의 연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반박논문의 형태로 표면화되기보다는 암묵적인 차원에 존재하는 것과도 관련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고전소설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쟁점으로 작용한다고도 볼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그간의 '고전소설과 여성'에 관한 연구[1] 성과들을 검토하고, 그 안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반성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논의 과정에서 연구의 현재 상황과 한계, 전망 등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이 분야 연구의 발전적 진행에 작은 도움이나마 보탤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논의는 전개는 2장에서 연구사 개관과 더불어 쟁점들을 정리하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필자가 추출한 새로운 쟁점을 3장에서 제시하는 순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2. 고전소설과 '여성'

2.1. 여성작가의 존재 가능성

고전 소설과 여성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은 부분은 여성 독자에 관한 것이었다. 작가와 창작년도에 대해 확실한 고증을 하기 어려운 고전소설의 특성상 초기의 연구는 주로 수용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이를 통해 조선후기의 여성이 소설의 중요한 독자층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1) '여성주의적 고전소설 연구'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은 상당수의 논의가 여성주의라는 뚜렷한 의식 없이 여성에 대한 관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성과, 여성주의적 시각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여성과 관련하여 참고해야할 연구물들을 포함시키기 위한 필요성 때문이다.

여성영웅소설이나 장편소설의 경우 비록 계층 면에서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여성들이 독서 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졌으리라는 가정 속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고전소설 향유층으로서 사대부가의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 상당부분 구체화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고전소설 향유에 관련된 여성의 활동을 수동적인 입장에서밖에 논의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대한 반성적 비판 속에 임형택, 임치균, 정병설, 정창권 등에 의해 여성작가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논의들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임형택이 <松南雜識>에 실린 '玩月安兼濟母所著'라는 기록을 바탕으로 <玩月會盟宴>의 작가가 안겸제의 모친인 전주이씨라고 주장하여 여성작가설의 선편을 잡은 후[2], 실증적 자료에 입각한 본격적 논의가 후배들에 의해 마련되었다.[3]

임치균은 '완월'이 곧 '완월회맹연'인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여 유보

---

2) 임형택, 「17세기 규방소설의 성립과 창선감의록」, 『동방학지』57, 연세대 동방학연구소, 1988.

3) 이 과정에서 주목을 받은 기록들로 아래의 자료들을 들 수 있다.

①…다만 쇼셜 신화의 허탄괴괴ᄒᆞᆫ ᄇᆞᆯ 다토아 즐겨보니 일없슨 션비와 지조 잇ᄂᆞᆫ 녀지 고금쇼셜에 일홈ᄂᆞᆫ ᄇᆞᆯ 낫낫치 번역ᄒᆞ고 그밧 허언을 창설ᄒᆞ고 긱담을 번연ᄒᆞ야 신긔코 ᄌᆞ미잇기를 위쥬ᄒᆞ야 거의 누쳔권에 지ᄂᆞᆫ지라.(洪羲福, <第一奇諺序>)

②또 완월은 안겸제의 어머니가 지은 것인데, 궁중에 흘려보내 명성과 명예를 넓히고자 했다. 又玩月 安兼濟母所著 欲流入宮禁 廣聲譽也(趙在三, <松南雜識>)

③李圓嶠의 자녀납매가 諺書古談을 지어 蘇氏名行錄이라고 하였는데, 家故를 당하여 한쪽 구석으로 밀어두었다. 원교의 꿈에 한 여자가 나타나서 소씨라 자칭하고 책망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사람을 不測之地에 빠뜨려 놓고 신원설치를 해주지 않는가?" 하였다. 깨어나서 크게 놀란 나머지 未編을 이어서 짓는데 형제와 숙질이 앉아 도왔다. 제삿날인데도 밤이 깊은 줄을 모르니 제사는 점점 늦어만 갔다. 문자의 묘가 入神之境함이 이와 같았다.(李裕元, <林下筆記>)

④옥원을 지은 지조ᄂᆞᆫ 문식과 총명이 진실노 규듕의 침몰ᄒᆞ야 ᄒᆞᆫ갓 무용ᄒᆞᆫ 잡져를 긔슬ᄒᆞ고 셰숭의 쁘이디 못ᄒᆞ미 가셕가탄이로다 명힝녹 비시명감 신옥긔린 등이 다 이 ᄒᆞᆫ 손의 난 빅로ᄃᆡ 각각 볼ᄉᆞ록 신신ᄒᆞ고 긔묘ᄒᆞ며 공교ᄒᆞ니 이샹ᄒᆞ다 (<玉鴛再合奇緣> 필사기)

⑤…말년의 미츠시 불쵸의 무리 만일 비러드리ᄂᆞᆫ 배 이슨 즉 혹 뒤젹여보시나, 문득 듕구의 이젼 말숨으로써 ᄀᆞ라쳐 ᄀᆞᆯ오샤ᄃᆡ "나 져문 녀편닉 일노 업을 삼ᄂᆞᆫ쟈ᄂᆞᆫ 다만 가ᄉᆞ를 황폐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왕왕이 보니 인가의 녀편닉 반은 알고 반은 모르ᄂᆞᆫ 일노써 문ᄌᆞ를 지어 여러 사ᄅᆞᆷ 가온ᄃᆡ 돌니되 유식ᄒᆞ니의 가마니 우ᄉᆞ믈 도라보들 아니ᄒᆞ니 심히 아란다온 일이 아니라.(黃鍾林, <先夫人語錄>)

하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여성작가들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논의를 펼쳤다. 고전소설의 경우 이름이 명시된 여성작가가 드물기는 하지만 여러 기록이나 작품상의 특징을 고려할 때 많은 여성 작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4] 정병설은 여성작가설에 대해 가장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당대 여성들의 교양 수준과 이를 바탕으로 한 소설 창작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과연 당대 여성들의 역량이 소설을 창작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통념에 답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시대에 공식적으로 여성들의 교육이 금기시되기는 하였지만 실상은 이와 달라 뛰어난 교양과 재능을 갖추어 女士라고 불렸던 사대부가의 여성들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이러한 교양 수준은 국문소설을 창작하기에 충분하였으리라는 것이다. 그는 이를 통해 <완월회맹연>과 <옥원재합기연>이 여성작가에 의한 창작임을 주장하였으며, 더 나아가 이 두 작품이 동일 작가에 의해 창작되었을 가능성까지도 제시하였다.[5] 반면 <옥원재합기연>을 이광사의 작으로 보고, 여성작으로 추정하는 단서가 되었던 '규방에 침몰'했다는 기록을 하나의 비유로 보고자 했던 논의도 존재하여[6] 논쟁거리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여성의 작으로 잠정적 결론이 난 듯하다. 정창권도 정병설과 비슷한 문제 의식을 공유하는 가운데 당대의 여성 억압적인 상황이 역으로 여성 소설의 탄생에 촉매제가 되었으리라는 논의를 펼쳤다. 조선후기 유교적 가부장제는 문벌주의, 혹은 가문주의와 함께 정착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가문 유지를 위한 의무는 증대하는 데 반해 그 위상은 가문의 부속적인 존재로서 현격히 격하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억압과 희생 속에서 여성들이 체험을 바탕으로 여성의 삶과 의식을 표현하는 일군의 국문 장편소설을 창작하였다는 것이다.[7]

---

4) 임치균, 「조선 후기 소설의 전개와 여성의 역할」, 『한국 서사문학사의 연구』, 경산 사재동 박사 화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1995.

5)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태학사, 1998, 203-210면.
정병설, 「옥원재합기연 작가 재론:조선후기 여성소설가의 한 사례」, 『관악어문연구』제22집, 서울대 국문과, 1997.

6) 최길용, 「<옥원재합기연>의 작가고」, 『조선조 연작소설연구』, 아세아문화사, 1992.

7) 정창권, 「조선후기 주자학적 가부장제의 정착과 장편 여성소설의 태동」, 『여성문학연구』 창간호,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7.

장편소설 뿐 아니라 여성영웅소설 역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주목받아 왔는데 <방한림전>의 후기를 바탕으로 여성작가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작품의 말미에 후기의 형식으로 가상작가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고전소설에서 흔히 발견할 수있는 관습이라 하겠는데 이 작품의 경우 특이하게도 가공의 작가를 여성으로 내세우고 있다.[8] 이를 토대로 비록 민한림 부인이라는 여성이 실재하는 인물은 아닐지라도 <방한림전>의 작가가 여성일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논의와[9], 당대 여성 작가들의 활발한 활동을 염두에 둘 때 작품내 서술자의 진술 속에 작가를 여성으로 설정한 '여성가상작가소설'은 여성작가의 작품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리라는, 좀 더 적극적인 논의가 개진되었다.[10]

요약하면 그간 고전소설의 여성작가 존재 가능성이 다방면에서 모색된 결과 실증적 자료 발굴과 사회적 배경 고찰을 통해 그 개연성이 두루 인정받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방증 자료가 그리 풍부한 형편은 아니고, 여성작가의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지니기는 하지만 관련 자료의 언급을 받아들인다면 여성 작가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을 듯하다.

2.2. 여성의식의 발견

여성과 문학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여성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 개념은 대개 세 가지로 이해된다. 첫째, **여성에 의해 창작된 문학**, 둘째, **여성주의적 시각을 보이는 문학**, 셋째, **여성에 관련된 문학**이 그것인데 후자로 갈수록 범위가 확장된다고 볼 수 있다.[11] 그런데 고전소설의

---

8) 위국공의 복녹과 방승상의 긔지사와 영부인의 협의기를 탄복ᄒᆞ야 **승상의 지둉 민한님 부인 방씨는 그 집 ᄉᆞ적을 아ᄂᆞᆫ고로 긔이ᄒᆞᆫ 마ᄃᆡ와 더문만 긔록ᄒᆞ아 세상의 전ᄒᆞᄂᆞᆫ니** … (<방한림전>)

9) 임치균, 앞의 글, 1603면.

10) 정병설, 「한국고전여성소설:연구사와 연구전망」, 『인문과학연구논총』,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2000, 25면.

11) 이경하, 「'여성/문학/사'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3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12. 242-243면.

특성상 구체적 작가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성작가의 작품을 밝혀내는 일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로 둘째와 셋째 항목과 관련하여 여성적 문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고전소설의 경우 그간 여성독자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주로 수용론적인 시각에서 여성적 문제를 다루다 보니 둘째와 셋째 개념이 혼재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여성주의적 시각을 추출하는데 있어서 작품의 실상보다는 연구자의 주관이 강하게 개입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그러나 이는 소설과 여성의 문제에 대한 연구 자체가 본격화된 게 그리 오랜 일이 아니라는 데서 기인하는 일종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최근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여성적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일차적인 관심은 아무래도 작품이 담아내는 여성적 시각, 혹은 여성의식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주제적인 측면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다수 연구도 이를 밝히는 데 주력해왔다. 그런데 작품의 여성적 시각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성적 시각, 혹은 여성의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리가 선행되어야 할텐데 연구사를 정리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연구자간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결국 동일한 작품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상이한 결론이 도출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12]

그러므로 우선 여성적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하게 사용되는 몇가지 용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여성문학 연구에서 문제삼는 여성은 생물학적 性으로서의 여성(sex)이 아니라 사회적 性개념으로서의 여성(gender)이다. 이는 사회제도 속에서 문화적으로 규정되고, 또 역사적으로 변모하는 개념이므로 상대성을 지닌다.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자연적으로 규정된 존재가 아니라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변모하는 존재라는 것과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이 사회적 산물이라는 것을 전제하게 된다.[13]

---

12) 물론 연구 행위 자체가 연구자의 관점이나 작품을 읽어내는 방식에 의해 크게 영향받기 때문에 동일한 작품을 두고서 다양한 시각이 제시되는 것은 일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 바람직한 현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 개념에 대한 인식의 결여로 인해 논의의 합일점이 모색되지 못한다면 이는 결코 발전적인 차원의 논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13) 이경하, 앞의 글.

이러한 개념을 염두에 둘 때 여성성/남성성이라는 용어도 사회적으로 학습된 통념의 성격이 강하며, 이를 잣대로 작품을 분석하는 것이 자칫 그릇된 통념을 강화시키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된다.[14] 특히 고전소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남녀의 性別 논의에서는 작품이 창작되고 향유되었던 당대의 사회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소홀히 하였을 때 실상을 무시한 채 급진적 여성의식을 주장하거나, 반대로 지배적 남성과 종속적 여성이라는 관습적 편견을 재적용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여성적 문제 의식을 지칭하는 용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용어들로는 여성적 시각, 여성주의적 시각, 여성중심적 시각, 여성주체적 의식 등이 쓰이고 있다. 이 중 여성적 시각은 우열성을 내포하지 않은 채 남성적 시각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포괄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性別에 대한 명확한 전제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무엇이 여성적인 것이고, 무엇이 남성적인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여성주의적 시각이란 '여성적인 관점에서 문학작품을 바라봄으로써 기존의 성차별적인 관행을 비판하고, 작품의 가치를 재평가하며 여성들의 다양한 정체성을 찾아내려는 시각'을 말한다.[15] 한편 여성중심적 시각은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던 여성의 본능적 욕구를 보편적인 것으로 재인식하고, 이를 통해 여성이 인격과 개성을 지닌 존재임을 주장하여 남성중심적 시각의 편협함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 한다.[16] 이는 여성을 인식의 중심에 놓겠다는 의식을 반영하는 용어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남성중심적이라는 용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性을 중심에 놓고, 다른 性을 주변으로 몰아내고 억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그 대안으로 여성주체적 의식이라는 용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여성주체적 의식이란 '여성이 자신의 삶의 주체

14) 이러한 자각 하에 '여성성/남성성'이라는 용어 대신 좀더 가치중립적이라 할 수 있는 '표현성/ 도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고전소설 인물의 기질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이경하, 「하옥주論:<하진양문록> 남녀주인공의 氣質 연구(1)」, 『국문학연구』제6호, 국문학회, 2001. 11.)

15) 백순철, 「<소현성록>의 여성들」, 『여성문학연구』창간호, 한국여성문학학회, 1997. 128면.

16) 박명희, 「고소설의 여성중심적 시각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1990.

가 되고자 하는 의식으로서 남녀가 똑같은 인간으로서 공존하며 자기 삶의 주체가 되기를 지향하는 자세를 가리킨다'는 것이다.[17] 용어에 따라 지향하는 바가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여성이 인식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자아를 찾아가려는 시각'이라는 점에서는 합의점이 보이는 듯하다.

주제 의식과 관련되는 용어로는 여성의식, 여성주의 등이 사용되는데, 유교적 가부장제 하에서 창작된 고전소설의 시대적 한계 때문에 여성주의라는 급진적 용어보다는, '여성 조건에 대한 인식과 여성의 자아실현에의 의지'[18]를 지칭하는 여성의식이라는 용어가 선호되는 듯하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당대의 시대적 한계를 문제삼아 고전소설에서 여성의식을 논하는 것은 견강부회이며, 여성의식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관심' 차원에서 논의하여야 한다고 비판하는 보수적 시각도 존재한다.[19] 이는 유교적 가부장제의 강한 남성주의 하에서 창작된 고전소설에 대해 여성의식을 논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것이라 파악된다. 그러나 가부장제의 억압이 강할수록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저항 또한 거세었을 것임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고전소설 연구에 여성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는 또 하나의 입장은 이를 페미니즘과 결부된 급진적 용어로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다. 페미니즘의 근대적이고 급진적인 잣대로 보자면 분명 고전소설 속의 여인들은 여전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고 여기에 여성해방적 의미가 담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무리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식이라는 용어를 페미니즘적 용어로 환치할 이유는 없다. 우리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서구의 사회 문화적 관습 속에서 근대적 의식과 함께 탄생

17) 김연숙,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국학자료원, 2002. 6. 38-39면.

18) 정병헌·이유경, 「여성성의 숨김과 드러남 : 여성영웅소설의 양상」, 『한국의 여성영웅소설』, 태학사, 2000. 292-293면.

19) 최호석, 「<옥원재합기연>의 男과 女」, 『고전문학연구』제 23집, 한국고전문학회, 2003. 6. 277-279면. 그는 정병설이 '여성소설의 개념이 여성작을 넘어서 일정한 여성의식까지 담보한 것을 지칭한다면 그러한 수준을 충족시킬 고전소설은 없다'(「조선후기 여성소설과 남성소설의 비교 연구-<옥원재합기연>과 <옥린몽>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제107집,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02. 2. 402-403면.)고 한 논의를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거로 삼고 있는데 필자의 독법으로는 정병설의 논의가 고전소설에 드러나는 여성의식을 부인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현대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급진적 여성주의의 잣대에 의해 고전소설의 여성의식이 폄하되는 것을 우려하는 가운데 쓰여진 것이라 보인다.

한 페미니즘의 기준을 우리 문학, 특히 고전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척도로 삼거나 무리하게 적용하려는 시도는 반성되어야 한다. 즉 작품이 배태된 시대적 특성을 고려하여 용어의 재정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고전소설 연구에서 사용하는 여성의식이라는 용어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작품의 분석을 통해 여성의식을 논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실제적 작품의 분석에 있어서 여성의식을 드러내는 대표적 제재로서 여성들의 정절과 烈의식이 주목을 받아왔다. 대다수 고전소설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여성들의 烈行에 대하여 忠孝烈로 대표되는 중세적 이념의 고양으로 해석한 기존 논의를 반성하고, 작품 속에 그려지는 烈이념의 다양한 양상과 의미를 새롭게 조망하는 논의들이 마련되었다. 烈行의 이면에서 포착되는 여성들의 열악한 삶의 조건과, 烈行이라는 수단을 통해 여성적 자존심을 지키려는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여성주체적 시각이 강하게 포착되는 다수의 장편소설에서 여성주인공의 정절을 지키기 위한 고난은, 특정한 남성을 상정하고 그에게 정절을 바치기 위한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 의식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보다 적극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도출되었다.[20]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그간 여성적 문제 의식을 강하게 드러내는 작품으로 논의된 <옥원재합기연>을 대상으로 하여 이 작품이 강한 가문의식과 남성중심적, 상층지향적 의식을 보인다는 정반대의 견해들도 존재하고 있어 흥미롭다.[21] 이 논법대로라면 <옥원재합기연>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장편소설이 비슷한 시각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상당부분 기존의 가문소설론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논쟁은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작품을 읽어내는 간극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며, 국문 장편소설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시각 차이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양자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작품의 실상을

20) 이에 대해서는 졸고, 「<옥원재합기연> 연작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01. 2.를 참조할 수 있다.

21) 엄기영, 「<옥원재합기연>의 작품세계와 연작관계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1. 12. 최호석, 「<옥원재합기연>의 男과 女」, 『고전문학연구』제23집, 한국고전문학회, 2003. 6.

더 정확하게 포착하고, 그 이면의 진실을 밝혀내는데 유용한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장효현은 <삼한습유>의 분석을 통해 이 작품이 여성의 改嫁를 작품 속에 실현시키면서 그 행위를 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세적 이념에 굴종되는 烈이 아니라 참된 사랑의 추구와 실현이 진정한 烈이라는 새로운 烈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여 보다 확대된 차원에서 烈의식을 파악하였다.[22] 권도경은 각도를 달리하여, 사대부 남성에 의해 강제된 烈이념을 고찰함으로써, 역으로 유교적 가부장제가 강화되는 사회 속에서 여성들에게 주어진 억압적 삶을 조망하였다. 그에 의하면 17세기의 애정류 전기소설이 신분적 한계를 지닌 기녀 출신 여주인공을 내세워 정절 관념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모하는 것은, 여성을 교화의 대상으로 인식한 사대부 남성의 의식이 반영된 탓이다.[23]

여성의식의 측면에서 활발히 논의된 또다른 문제는 적극적으로 자아를 찾아가는 주체적 여성상에 관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들이 이상적인 기준으로 제시하는 여성상은 순종과 인내로 표상된다. 대개의 고전소설 여성주인공들도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나 내면 갈등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 또한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인식하고,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서가 아니라 독자적 개인으로서 자신의 주체성을 확립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24] 또한 고전소설의 여성들이 소극적 존재로서 그려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장으로서 家權을 행사하는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주체적으로 여권을 수호하기 위해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가문 내에서의 역할을 확보해 나가기도 하는, 적극적 여인상으로 그려지기도 한다.[25] 표면적

---

22) 장효현, 「<三韓拾遺>에 나타난 烈女의 形象」,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제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6.

23) 권도경, 「17세기 애정류 전기소설에 나타난 정절관념의 강화와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제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6.

24) 졸고, 앞의 글.
졸고, 「<창란호연록>의 갈등 구조와 의미」, 『한국문학연구』제4호, 고대 한국문화연구소, 2003. 12.

으로는 남성 지배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이는 孝行과 烈行이, 이면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성 경계를 넘나들거나 아예 이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남성들을 압도하는, 여성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면모를 읽어낼 수도 있다.[26] 심지어는 知己가 될 수 있는 남성과의 인격적 만남을 갈망하며 남편을 떠나는 파격적인 하층여성을 통해 사회적 가치에 우선하는 개인적 욕망을 그려내기도 한다.[27]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전 소설과 관련된 여성의 문제는 독자층의 욕구 반영이라는 측면의 간접적 논의를 넘어서, 작품의 분석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여성의식을 추출하려는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 구체적 여성 작가를 확정한 상태에서 여성의식을 추출해내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역으로 작품 속에 드러나는 여성의식을 바탕으로 당대 여성의 삶을 조망하고 작가의식을 고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물론 연구자의 주관성 개입이라는 함정과 아직 장르와 계층, 시대적 차이에 따른 여성소설 내부의 변별성이 구체화되지 못했다는 한계 등이 존재하지만[28], 지금까지 중세적 이념의 지배 하에서 천편일률적인 내용과 가치관을 표현하는 대상으로 인식되던 고전소설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고 가치를 부여한 긍정적 측면은 적극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2.3. 여성적 특징에 대한 관심

여성소설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색은 여성작가의 가능성이 논의되는 시점부터 시작되어 왔다. 여성소설에 대한 회의론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여성작이라 제시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남성들에 의해 쓰여진 글과는 다른, 여성적 특징들을 밝혀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기초는 정병설과 정창권에 의해 마련되었다. 정병설은 <옥원재합기연>을 중심으

25) 백순철, 앞의 글.
26) 서인석, 「봉건시대 여성의 이념과 행동-<박효랑전>과 <김부인열행록>의 경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제6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6.
27) 조혜란, 「<布衣交集> 여성주인공 초옥에 대한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제3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12.
28)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로 다음의 네 가지를 여성소설적 성격으로 제시하고 있다.

① 옷이나 장신구에 대한 관심이 자세히 드러나 있는 점
② 전통시대 여성 고유의 임무인 女工에 대한 관심이 잘 나타난다는 점
③ 오직 여성들만이 체득할 수 있는 출산의 정황이 잘 나타나 있다는 점
④ 인물의 심리분석이 매우 확대되어 있다는 점[29]

이와 비슷한 시기에 정창권 역시 <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장편 여성소설의 글쓰기 방식으로 ① 세상사는 이야기와 장편화, ② 일상생활의 소설화, ③ 대화체적 글쓰기, ④ 설화적 표현과 현실성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30] 이후 정병설은 여성작인 <옥원재합기연>과 남성작인 <옥린몽>을 대상으로 여성소설과 남성소설의 비교를 시도하면서 위의 여성소설적 특징을 재확인하고, 이에 더하여 표현면에서 인용투어나 속담의 활용이 빈번하고, 서사구조의 면에서 열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상면에서 유교 이념에의 경도를 보인다고 하였다.[31]

그런데 이러한 논의들은 여성소설의 특징을 논하는 데 있어서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한계를 노출한다.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작품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일반화가 어렵다는 점과, 인상비평적 차원에 머물러 여성소설의 미학적 특질을 본격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는 후속 논의들에 의해 보완되고 있다. 최근의 논의들은 여성작이라고 밝혀진 소수의 작품만으로는 논의의 진전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논의 대상을 여성과 관련된 소설 일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성의식을 강하게 드러내는 소설들 뿐 아니라 남성에 의해 창작된 남성중심적 소설들도 포함되었다. 이는 남성중심적 시각을 보이는 작품과 여성중심적 시각을 보이는 작품을 비교함으로써 양자의 차이를 통해 여성적 특징을 추출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

29) 정병설, 「<옥원재합기연>의 여성소설적 성격」, 『한국문화』제21집,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8. 6.
30) 정창권, 「장편 여성소설의 글쓰기 방식」, 『여성문학연구』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31) 정병설, 앞의 글, 2002. 2.

박혜숙·최경희·박희병에 의해 공동으로 집필된 여성의 자기서사체에 대한 연구[32]는 고전소설을 자료로 한 것은 아니지만 여성의 글쓰기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준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이에 의하면 여성들은 주류적 글쓰기이자 남성의 글쓰기로 인식되었던 한문글쓰기에서 소외된 채 '암클'이라 멸시되었던 한글을 수단으로 하여 자기 표현 영역을 확대시켜 나갔다. 전통시대 여성의 자기서사에 나타난 여성적 자아는 신분의 성패나 인생의 성패 여부에 관계없이 유교 윤리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통해 유교적 여성 담론이 여성적 자아의 존재방식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여성의 자기서사에서 어린 시절은 친정과 관련되는 행복한 시절로 기억되는 반면, 어른으로서의 삶은 시집살이나 슬픔, 불행과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유교적 이념이 당대 여성들의 의식을 억압하고 있었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고전소설이 표면적으로는 강한 이념성을 띠는 것처럼 파악되는 것과 관련을 맺는다. 여성의식이 강하게 포착되는 소설들도 외면적으로 볼 때는 당대의 지배 이념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표면적 내용만으로는 작가의 의도나 작품의 주제를 제대로 포착할 수 없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진실은 내면에 숨겨져 있으며, 이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작품의 외연을 뒤집어 보고, 이념의 울타리 안에 존재하는 고통과 회의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여성의 자기 서사가 유교적 이념을 충실히 표방하면서도, 그 이념에 의해 마련된 종속적 삶-시가에서의 삶으로 표상되는-을 슬픔이나 불행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여성 서술자를 통해 여성의 문제를 강하게 표현하는 소설이 가지는 특성을 고찰한 논의도 있다. 김경미는 <운영전>이 1인칭 여성 서술자를 통해 여성의 세계를 풍부하게 구현해낼 수 있었다고 하였다.[33] 여성이 서술의

32) 자기서사란 화자가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진술하는 텍스트를 지칭하는 것이다.
박혜숙·최경희·박희병, 「한국여성의 자기서사 (1)」, 『여성문학연구』제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1. 2.
박혜숙·최경희·박희병, 「한국여성의 자기서사 (2)」, 『여성문학연구』제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1. 8.

주체가 됨으로써 여성의 공간이 서사의 중심 공간으로 설정되었으며, 여성이 사랑을 하는 감정의 주체로 나서면서 점진적인 내면의 변화과정을 겪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남성중심적 시각을 강하게 드러내는 애정소설에서 애정을 성취하기 위한 남성의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는 동기가 합리화되는 반면, 여성들의 대응방식은 여성의 보편적인 정서와는 이질적으로 그려진다는 점과 비교가 된다. 무엇보다도 여타 애정소설의 여주인공들이 남성 욕망이 투사된 존재들로 기능하는 것과는 달리, 운영은 자기 욕망의 주체로서 스스로 선택하고 거부하는 독립된 인격체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는 운영 자신을 서술자로 설정함으로써 가능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소설은 중세 질서에 의해 억압당하는 궁녀들의 연애담이 여성의 입을 통해 이야기됨으로써 그들의 욕망과 그 욕망에 모순되는 현실이 핍진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적 성취도 이루었다고 한다. 이러한 논의는 서술자를 통해 여성의식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주제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구조적 측면에서도 여성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한편 '여성적 시각에서의 고전읽기가 지니는 역사·사회적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언술특성에 주목한 연구가 신선희에 의해 마련되었다.[34] 그는 <춘향전>을 대상으로 여성 인물의 언술 양상을 고찰하였다. 춘향의 언술은 윤리의 구현이라는 사회적 의미와 여성적 정서의 표출이라는 개인적 감흥이 얽혀 숭고미와 비장미를 창출해내고 있으며, 춘향에 대한 서술자의 언술은 기생인 춘향에 대해서는 놀림의 어조를, 열녀인 춘향에 대해서는 칭송과 감탄의 어조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 여주인공 춘향의 언술과 남성의 언술을 대비하여 여성의 언술은 불변, 통합, 개인적 범주의 윤리가 사회적 범주의 윤리로 확대·고양, 한과 원망의 정서 풀이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논의는 작품의 의미를 작품 내적 언술과 관련지어 해석해보고자 한 새로운 시도로서 고전소설 연구의 방향을 다양

33) 김경미, 「<운영전>에 나타난 여성 서술자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제4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6.

34) 신선희, 「<춘향전>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언술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제5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12.

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작품의 구체적 언술 양상에 대한 해석은 존재하나 그것을 하나로 묶어내어 작품의 주제와 연결시키는 점에서는 미흡하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따라서 작품 전체의 미적 특질을 밝히고 나아가 판소리계 소설 일반의 언술적 특징과의 관계를 밝히는 작업을 과제로 남기고 있다고 하겠다.

한국 서사문학의 전통에서 환상과 여성이 만나는 지점과 의미를 고찰한 연구도 있다. 이승수는 <최치원>, <취유부벽정기>, <구운몽>, <옥루몽>, <무진기행>, <천지간> 등 환상적 요소를 가진 남성작 소설들을 분석하여 이 소설들에서 인식방법상에 있어 타자인 환상과, 존재에 있어 타자인 여성이 '불가해성, 비사회성, 일시성, 비명명성'을 공유하며 만나고 있다고 하였다.[35] 서사 작품에서 여성과 환상의 인접성은 일반적인 현상인 바 이는 여성과 환상이 사회 지층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왔기 때문이며, 주변부로 밀려있던 소외된 지식인들이 이러한 여성들로부터 위로를 받거나, 자신의 욕망을 투영한 여성상을 창조함으로써 이에 합류한다고 한다. 즉 환상과 여성은 경이나 동경이라는 외피 속에 담겨진 무시나 멸시의 시선을 받아왔으며, 이는 환상계를 해명하는 지식 체계의 미비와 여성을 지배하려는 남성의 의도가 결합된 결과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의 문제를 작품의 미학적 특질과 관련시키는 지점까지 연구사가 진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전 소설과 여성이 맺고 있는 관계와 그 특성에 주목하여 주제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형식·구조면, 미학적 측면에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고전소설과 여성의 관계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마련되기 시작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탓으로 아직 상당부분의 연구가 시론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고전여성문학회의 발족과 더불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발전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간의 남성중심적 연구 관행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여

35) 이승수, 「서사에서 환상과 여성의 인접성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제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6.

성문학연구 역시 교조화될 수 있다는 비판적 의식 하에 연구의 지층을 다양화하려는 움직임들이 일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참고하면서 다음 장에서는 그간의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비판적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향후 여성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발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3. 비판적 문제제기

최근 들어 고전소설 연구에서 여성적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간의 소설 연구가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소홀히 하였거나 놓쳤던 부분들을 발견해내고, 이를 통해 소설사적 균형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하나의 유행처럼 작용하거나 도식적 논의가 습관적으로 반복 재생산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많이 접하게 된다.[36]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는 밑바탕에는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 뿐 아니라, 여성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마주치게 되는 여러 가지 장애에 대한 인식과, 앞으로의 연구가 그 장애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한 근심섞인 기대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현재 이 분야의 연구가 놓여있는 현실을 진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연구의 발전적 진행을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 네 가지를 추출해 보았다.

3.1. 여성소설의 규정과 관련하여

고전소설과 여성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일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36) 최근의 소설 연구 동향을 소개하는 논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이러한 우려를 발견할 수 있다.
서인석, 「소설문학 연구동향」, 『국문학 연구』창간호, 국문학 연구회, 1997. 350면.
이창헌, 「2000년도 소설문학 연구동향」, 『국문학 연구』제6호, 국문학회, 2001. 11. 468면.
조광국, 「2002년도 소설문학 연구동향」, 『국문학회 2003년도 하계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국문학회, 2003. 7. 99면.

은 여성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으로 인해 연구 대상의 범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이다. 논자에 따라 여성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소설사에서 여성소설이라고 지칭할 만한 작품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한 형편이다. '여성에 의해 창작되었으며, 여성의 삶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여성의 정체성을 찾아가고자 하는 소설'을 진정한 여성소설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고전소설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성소설을 몇몇 제한된 작가와 작품의 범주 내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37] 전제 하에 범위를 확대하여 여성적 문제를 담고 있는 소설들을 여성소설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경우 여성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라는 기준이 애매하여 여성의 의식을 담아내는 소설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여성의 문제를 제재로 삼는 소설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불분명해지곤 한다.[38] 가령 여성을 교화의 대상으로 삼고 여성이 가정 내에서 겪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소설의 경우, 남성적 사고가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소설을 여성의 문제를 다루는 소설 일반으로 확장할 때 이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범주 안에는 강한 여성의식을 담고 있는 작품들도 공존하게 된다. 즉 가치 지향이 전혀 다른 소설들이 한 범주로 묶이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한 범주 안에 묶인 일군의 작품들을 일관된 논리로 설명해내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즉 여성소설의 특징으로 언급된 주제 의식이나 형식적 특징, 글쓰기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개별 작품들에 대한 해명에 머물 뿐 구심점을 가지고 체계화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노출하는 것이다.

---

37) 정병설, 「조선조소설과 여성작가」, 『덕성어문학』제10집, 덕성여대 국어국문학과, 2000. 392면.

38) 실제로 많은 연구가 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지 못한 채 여성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로 인해 남성적 사고가 지배적인 작품에서조차 성급한 여성 논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이 일군의 자료를 지칭할 용어를 가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선행연구자들이 사용한 여성소설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다룰 연구 대상에 부합하는가 하는 일차적인 물음이 다시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여성소설이라는 용어는 여러 면에서 한정적 의미를 연상시키는데 자료의 실상은 그보다 더 포괄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여성소설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과 연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외연만을 확장할 경우 결론 없는 순환론적 회의만이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소설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할 경우 그 한계 범위와 책정 기준에 대한 합의가 선행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지적이 여성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대상 자료들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 문제는 다각도에서 조망될 수 있다. 여성이 창작한 소설이나 여성 의식을 드러내는 소설은 물론이고, 성차별적인 이데올로기를 다루는 소설들에 대한 고찰까지도 여성에 대한 제도적 억압을 살피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자료의 층위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대상 자료가 여성소설, 여성의식을 드러내는 소설, 여성문제를 다루는 소설 중 어느 층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연구자 자신의 고려가 전제되지 않은 채 작품 속에 드러나는 여성적 성격만을 부각시키다 보면 실상의 차이는 무시된 채 모든 것이 여성성의 발견이라는 동일한 논리에 의해 재단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여성소설의 규정에 대한 논의는 명명의 필요성과[39] 이에 부응하지 않는 자료 실상의 충돌이라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중심적 글쓰기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주변부로 밀려나 있던 소설 장르의 특성과 이로 인한 창작 배경, 향유 배경에 대한 미흡한 기초 지식에 기인한다. 결국 현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결은 연구결과의 축적이라는 귀납적인 방법에 의해서 가능하리라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소설이 드러내는 여성적 시각의 층위와 그로 인한 차이에 대한 인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39) 여성문학 연구의 초기에 선언적 명명들이 일정한 기여를 했음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로 인해 연구 대상과 목적이 선명하게 인식되고, 연구의 의의가 부각됨으로써 연구의 초석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3.2. 여성의식의 해석과 관련하여

고전소설과 여성에 관련하여 두 번째로 제기되는 문제는 여성성, 혹은 여성의식의 추출과 해석에 대한 것이다. 이 부분에 관련된 초기 연구들은 주로 작품에 드러나는 여성주체적 시각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그동안 무시되었거나 가치 폄하되었던 여성의 문제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간의 남성중심적 시각에 대한 비판의식이 흑백논리의 과도한 양상으로 표출되거나,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성이 남성성보다 우월한 것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당연히 많은 남성 학자들의 반발과 빈축을 샀을 뿐 아니라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극복되어야 할 문제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은 작품의 표면적인 여성의식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그 이면의 의미를 포착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식을 반성적으로 재조명하려는 단계로 연구사를 진전시켰다. 이로 인해 동일한 대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는 가운데 작품을 좀 더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로 여성영웅소설 중 <방한림전>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방한림전>은 여성영웅소설 중에서도 同性結婚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받는 작품이다. 양민정은 방관주가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내는 일없이 조선조 사회제도 하에서 완벽하게 영웅적 삶을 실행하는데, 그 영웅의 실체는 여성이므로 여성도 완벽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우월감 내지는 남성과의 평등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40] 그리고 이러한 점은 작가가 성차별 의식을 비판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평등주의의 지향 의식이 있는' 인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였다.[41] 차옥덕은 이 작품의 작가를 여성이라고 보고, 작품 속에 그려지는 여성과 여성간의 결혼이 봉건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요구되는 女道 거부의 절정을 보여주는 모티프이며,

40) 양민정, 「고소설에 나타난 조선조 후기사회의 性차별의식 고찰-<방한림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제4집, 한국고전연구학회, 1998. 11. 147면.
41) 위의 글, 152-154면.

이런 점에서 방관주는 자유주의적 여성해방론자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42] 두 연구자의 시각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성결혼의 모티프를 통해 이 작품을 급진적 여성의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인 것 같다.

그런데 장시광은 이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그에 의하면 이 작품에서 여성적 자각을 강하게 드러내는 인물은 영혜빙이며, 방관주는 오히려 남성 콤플렉스를 벗지 못하고, 남성을 지향하며 가부장제를 구현하려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의 남장은 여성 현실을 절실히 인식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남성에 대한 일방적이고 무의식적인 지향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이 작품이 진지함과는 거리가 있다고 여겨지는 통속소설로서의 영웅소설에 포함되는 유형적 특징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43] 즉 표면적으로는 여성적 억압을 벗어버리고 남성과 동등한 능력을 발휘하는 여주인공이 선진적 여성의식을 구현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남성성에 대한 동경과 가부장적 질서에의 감화를 떨쳐버리지 못한 한계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점은 <홍계월전>의 여주인공 홍계월이 남장을 통해 출장입상함으로써 가장 신장된 여성의 지위를 보여주지만 지위가 신장될수록 오히려 여성성은 상대적으로 소멸해가며, 이를 통해 여성성보다는 남성성이 찬양되는 역설이 드러난다고 한 이인경의 논의나[44] <정수정전>의 여주인공이 남성을 압도하는 무공으로 나라를 구하고 가문을 회복하는 위업을 달성하면서도 가정에서의 부덕까지 겸비해야하는 것으로 그려지는 것은 여성해방의식의 표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진실의 논의에서도[45] 지적된 바 있다. 이들은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 하에, 작품의 여주인공들이 자신의 여성성 자체를 자각하고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성을 우월한

---

42) 차옥덕, 「<방한림전>의 여성주의적 시각 연구」, 성신여대 박사학위 논문, 1999.

43) 장시광, 「<방한림전>에 나타난 동성결혼의 의미」, 『국문학연구』제6호, 국문학회, 2001. 11.

44) 이인경, 「,홍계월전> 연구 -갈등양상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제17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2.

45) 사진실, 「<정수정전> 이본의 계통과 변모양상」, 『한국고전소설과 서사문학 上』, 집문당, 1998.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려는 것은 그들의 여성의식이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듯하다. 즉 여성의 활약상 이면에 존재하는 性에 대한 차별의식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덧보태어 남성화된 여성의 존재는, 여성의 신분으로서는 사회적 성취를 이룰 수 없었던 당대의 시대적 한계를 고려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다. 또 그것이 여성영웅소설이 유형적 통속소설로서 가지는 상투적 흥미소로 기능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 두가지 요소가 균형감 있게 고려될 때 더욱 중층적인 의미 분석이 가능하리라고 보인다. 이처럼 동일한 작품의 의미도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될 수 있으며, 특히 그 중층적인 의미망에 주목할 때 이전에는 간과되었던 새로운 의미들을 포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급하게 여성적 시각을 추출해내고 급진적 의미를 부여하는 위험성을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고 보인다.

3.3. 근대성과 관련하여

다음으로 여성의식과 근대성을 연결짓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여성의식을 다루는 많은 논의들이 이를 근대적 의식의 발현이나 근대적 성취 등과 관련지으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고전소설에서 다루어지는 여성의 억압이 봉건적 가부장제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자각과 극복 의지를 보이는 것은 봉건성을 탈피하여 근대적 정신에 가까이 가는 것이라는 인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 또한 거세다. "겉으로 드러나는 봉건적이고 보수적인 이념의 이면에는 반봉건적이고 진보적인 계기 혹은 요소가 있다는 식의 주장은 그 '정도'를 문제삼지 않으면 거의 모든 소설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서인석의 언급이나[46], 18세기 중반 이전에 창작되었으리라고 보이는 <명주기봉>의 여성의 자아 발견을 근대적 의식의 발현으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라는 송성욱의 논의를[47] 예로 들 수 있다. 전자는 봉건성의 탈피가 곧 근대성이라는 단순 논리

46) 서인석, 앞의 글, 1997. 350-351면.
47) 송성욱, 「<명주기봉>과 규방에 대한 관심」, 『한국대하소설의 미학』, 2002. 12. 268면.

를 경계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역사적인 시기로서의 근대를 염두에 두고 비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분리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먼저 단순 논리에 의한 근대성 부여는 당연히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서인석의 언급에서도 표현되었듯이 '정도'가 문제가 되는데 많은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고전소설이 창작되고 향유된 시기는 유교에 기반한 봉건 이념이 지배적이었고, 이 속에서 인간은 공동체적 윤리나 규범에 강하게 구속되었는데 특히 여성들은 가부장제 하에서 주체적 개인으로서보다는 내외법과 삼종지도 등에 의해 규제되는 타자로서 인식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제도적 억압 속에서 여성들이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서가 아니라 주체적 개별자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욕망을 근본 원리로 하여 형성되는 근대 시민사회의 인간이, 자신의 특수한 욕망을 추구하는 개별자로서의 개인으로 규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여성들의 자아 인식에는 분명 근대적 각성의 일단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근대성의 발현이라 속단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근대적 개인처럼 철저히 독립적인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중세의 지배 이념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전소설의 여성이 보이는 급진성은 이러한 시대적 한계를 인식한 바탕 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즉 소설이 창작된 역사적 시기에 대한 충분한 고려 위에 작품의 진보적 의식에 대한 의미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진보성이 당대의 통념과 비교하여 어떤 지점에서 더 나아갔으며, 근대적 관점과는 어떤 차이를 지니는지가 보다 면밀히 따져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서구의 근대성 논의에 입각하여 고전소설의 여성의식을 근대성의 결여나 결핍으로 폄하하는 태도 또한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송성욱이 지적한 근대성의 문제는 소설에 드러나는 근대적 의식 차원이 아니라, 조선후기 소설사의 전개에 대한 조망과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48] 통념화된 것과는 달리 국문장편이 보이는 여성 문제에 대한

48) 그가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명주기봉>이라는 구체적 작품이지만 논의의 과정에서

자각은 그 소설들이 근대와 가까운 시기에 산출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런 여성의식은 이른 시기에 형성된 규방소설과의 친연성 속에서 배태된 것이며, 가문의식이 강화되는 시점에 그에 대한 대타적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런 소설들이 19세기가 아닌 18세기 중반 이전에 이미 창작되고 향유되었다는 것도 이들을 근대와 관련짓기 힘들다는 논의를 뒷받침한다.

그런데 정병설의 경우 이와는 상반된 시각을 보여 흥미롭다. 그는 <옥원재합기연>의 심리분석적 성격과 시점에 대한 인식을 지적하고 이것이 근대소설과 상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49] <옥원재합기연> 역시 필사 연대로 미루어 볼 때 18세기 중반 정도에 창작되었으리라고 짐작되므로, 두 연구자를 통해 비슷한 시기에 창작된 비슷한 유형의 작품들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자가 전대 소설 전통과의 관련성에 무게를 두고 대상 작품을 바라보고 있다면, 후자는 대상 작품의 새로움이 전대의 소설과는 차별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인식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장 차이를 통해서도 확인되듯이 장르적 차원에서 고전소설을 근대성과 연결짓는 것은 소설사의 전개에 대한 연구자의 시각과도 관련을 가지는 문제이므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자의 경우 <창선감의록> 등의 초기 규방소설과 국문 장편소설과의 관계가 좀 더 면밀히 고구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역사에서 근대적 요소들이 언제부터 싹트기 시작했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에 논자 나름의 해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논자가 지적한 심리분석과 시점의 발견이 근대적 요소와 상통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근대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를 가르는 기준과 그 차별성에 대한 해명이 요구된다 하겠다.

도출된 특징들은 비슷한 의식을 공유하는 다수의 국문장편소설들에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장편소설의 사적 전개와 관련지어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49) 정병설, 앞의 글, 2000. 391면.

3.4. 연구의 세분화화 관련하여

마지막 문제로 논의의 未分化를 들 수 있다. 장르와 시기에 따라 변별될 다양한 작품군에 대한 논의가 그 차이에 따라 세분화되지 못하고, 여성이라는 동질성 속에 묶여 비슷한 내용들을 반복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여성영웅소설이나 국문 장편소설, 한문소설, 판소리계 소설 등에 형상화된 여성의 모습은 다양하게 차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결과들은 억압적 현실에 대한 여성의 자각과 저항이라든가, 여성의 정체성 인식이라는 식의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언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와 더불어 하나의 하위 장르 내에서 보여지는 차이에 대한 고려도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는 고전소설 연구에 있어서 여성문제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새로운 방법론으로 제시된 그간의 여성문학 연구는 여성으로서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데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것이 여성문학연구의 전제이자 출발점이라면, 상이한 시간과 공간에 속하는 여성간의 차이를 밝히는 것은 개별 연구의 목표이자 방향"이라는 지적처럼[50] 여성소설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환기가 필요하다.

아직 소수이기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들이 생산되고 있다. 우선 계층에 따른 여성의식의 차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부장제 하에서 억압받는 여성의 처지가 비슷하다 할지라도 상하층간의 차이는 분명 존재했을 것이고, 이런 차이가 상하층의 문학양식에 각기 다르게 표현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계층간 위계가 엄격했던 당대의 사회 질서를 감안하면 그러한 차이는 더욱 뚜렷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개의 논의가 장편소설을 향유했던 사대부 여성들에 집중되어 왔거나 중하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계층간의 차이에까지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채 비슷한 결론을 도출한 경향이 있다. 이런 점에서 기녀를 위시한 평·천민 여성들의 의식에 관심을 기울인 조광국

50) 이경하, 앞의 글, 2002. 12. 254-255면.

의 그간 논의들은 의미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양반 중심으로 서술되는 기녀등장소설의 경우 기녀가 정조를 내세워 애정을 성취하고 기녀 신분에서 벗어나려는 의식을 드러내고, 기녀 중심으로 서술되는 기녀등장소설의 경우 양반권력층의 향락적 풍류의식에 보다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의식을 보인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중서층 혹은 평민부자층에 속하는 왈자의 향락상을 문제삼는 소설의 경우 평천민 여성들의 자의식이 보다 확고히 드러나고 삶의 주체성과 주도성이 두드러진다고 하였다.[51] 상층여성의 의식과 하층여성의 의식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에 대한 해명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기녀라는 하층 여성의 의식이, 관계맺는 대상에 따라 어떻게 세분화되는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장르간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여성영웅소설과 국문 장편소설은 다른 향유층에 의해 창작되고 읽혔으며, 각각의 장르적 유형성에 의해 내용과 구조 모두 일정한 차별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여성영웅소설에 드러나는 여성의식과 장편소설에 드러나는 여성의식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의식이 발현되는 양상도 다를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장편 여성영웅소설이라 할 수 있는 <부장양문록>을 처음 학계에 소개한 정병설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부장양문록>은 장편이라는 장르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하층의 단편 여성영웅소설이 드러내는 통속성을 뛰어넘어 상층 장편소설로서의 사실성과 진지성을 확보하였다고 한다.[52] 이처럼 장르간의 차별성을 염두에 두고 여성의식의 분화를 밝히려는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장르 내부에서의 변별성도 주목할 만하다. 소설의 하위 장르 내에서도 다시 세부 유형이 묶여질 수 있으며, 이러한 유형들이 나름대로의 장르 관습에 의해 운동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과 관련하

51) 조광국, 「19세기 향락상에 대한 평·천민 여성의 자의식 구현의 한 양상-<이춘풍전> <무숙이타령> <삼선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창간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0. 10.

52) 정병설,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와 <부장양문록>」, 『고전문학연구』 제19집, 한국고전문학회, 2001.6.

여 류준경의 논의를 참고할 만하다. 그는 여성영웅이 등장하는 소설들의 계통 정리에 대한 문제 의식 하에, 사대부여성이 주향유층인 작품들과 영웅소설의 관습을 이어받은 작품들을 다른 연구 시각으로 봐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전자의 경우 여성의식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후자의 경우 여성영웅의 형상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여성독자층의 의식 반영보다는 영웅소설의 유형성과 대중성, 흥미성 등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여성의식이 탈각되었다는 것이다.[53] 이러한 논의를 통해 여성영웅소설의 연구에 있어서 각 작품의 담당층이나 장르적 성격, 미의식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되는데[54] 이러한 문제 의식은 비단 여성영웅소설에만이 아니라 여성소설 전반에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통시적 측면에서의 다양성 또한 탐구되어야 할 대상이다. 고전소설의 특성상 창작 시기를 정확히 고증하기 힘들고, 텍스트 자체가 오랜 세월에 걸쳐 다양한 이본을 통해 이루어진 적층문학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는 것은 예상되는 바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비단 여성소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소설사의 재구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므로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4. 전망과 과제

고전소설에서 여성문제를 다루는 연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다양한 방면에서 제기될 수 있다. 다루어야 할 대상의 거대함에 비해 연구의 진행은 아직 초창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때로 발견되는 방법론적 미숙함이나 균형감의 상실 등도 이에 말미암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문제는 연구가 축적될수록 개선되리라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연구의 발전적 진행을 가로막는 대표적 요소는 실증적 자료의 부족이다. 소수의 자료에 기대어 연구가 촉발되기는 하였지만 더 이상의

53) 류준경, 「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여성영웅소설」, 『고소설연구』제1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1. 12.
54) 위의 글, 11면.

결정적 자료를 추가하지 못한 채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듯하다. 여성들의 소설 향유와 관련된 부분적인 언급들을 통해 여성과 고전소설의 관계가 상당히 뿌리 깊고 폭넓었던 점을 유추할 수는 있으나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빈약한 형편이다. 앞으로 지속적인 자료의 발굴이 요청된다.

그러나 주변부적 장르로서 익명성을 내세웠던 소설의 특성상 자료 발굴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작품 자체의 실상에 근거한 귀납적 연구에 기댈 수밖에 없다. 사실 문학 연구의 본질은 작품 외적인 사실들보다는 작품 자체에 대한 탐색에 놓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부차적인 과제가 아니라 일차적 과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별 작품 연구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연구자의 주관이 강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여성 문제를 다룬 연구들 간에 존재하는 편차는 대단하다. 따라서 작품을 분류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형론적 연구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유형론적 연구가 때로 작품의 개성을 탈각시키는 폐해를 보이기도 하지만, 장르적 관습과 그로 인한 유형적 특성을 무시하면 개별 작품들간의 동질성과 차별성을 올바로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형적 한계를 망각한 채 급진성을 부여하거나, 역으로 유형적 특성을 무시한 채 보수적 굴레를 씌우는 과오들이 이를 통해 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사적 연구 또한 요구된다. 과거의 산물인 고전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당대 사회에 대한 기초 지식은 필수적인데 특히 여성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전소설이 유교 이념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속에 존재하는 여성들의 저항 의식을 올바르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당대 사회 이념과 실상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이 선행되어야 작품을 균형감있게 읽어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참고하거나, 국문학계 내에서 관련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고전소설의 향유에 있어서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고려할 때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소설 연구가 균형잡힌 소설사를 조망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소설사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균

형감 있는 시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연구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뿌리깊은 편견과 그 편견에 맞서는 또다른 여성중심적 편견을 불식하는 것이 이 분야 연구 발전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라 하겠다.

KCI

참고문헌

권도경, 「17세기 애정류 전기소설에 나타난 정절관념의 강화와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제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6.

김경미, 「<운영전>에 나타난 여성 서술자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제4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6.

김연숙,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국학자료원, 2002. 6.

류준경, 「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여성영웅소설」, 『고소설연구』제1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1. 12.

박명희, 「고소설의 여성중심적 시각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1990.

박혜숙·최경희·박희병, 「한국여성의 자기서사 (1)」, 『여성문학연구』제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1. 2.

_____, 「한국여성의 자기서사 (2)」, 『여성문학연구』제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1. 8.

백순철, 「<소현성록>의 여성들」, 『여성문학연구』창간호, 한국여성문학학회, 1997.

사진실, 「<정수정전> 이본의 계통과 변모양상」, 『한국고전소설과 서사문학 上』, 집문당, 1998.

서인석, 「소설문학 연구동향」, 『국문학 연구』창간호, 국문학 연구회, 1997.

_____, 「봉건시대 여성의 이념과 행동-<박효랑전>과 <김부인열행록>의 경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제6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6.

송성욱, 「<명주기봉>과 규방에 대한 관심」, 『한국대하소설의 미학』, 2002. 12.

신선희, 「<춘향전>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언술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제5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12.

양민정, 「고소설에 나타난 조선조 후기사회의 性차별의식 고찰-<방한림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제4집, 한국고전연구학회, 1998. 11.

엄기영, 「<옥원재합기연>의 작품세계와 연작관계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1. 12.

이경하, 「하옥주論 : <하진양문록> 남녀주인공의 氣質 연구 (1)」, 『국문학연구』제6호, 국문학회, 2001. 11.

_____, 「'여성/문학/사'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3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12.

이승수, 「서사에서 환상과 여성의 인접성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제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6.

이인경, 「,홍계월전> 연구 -갈등양상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제17집, 서울

대 국어국문학과, 1992.
이지하, 「<옥원재합기연> 연작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01. 2.
_____, 「<창란호연록>의 갈등 구조와 의미」, 고대 한국문화연구소 발표문, 2003. 11.
이창헌, 「2000년도 소설문학 연구동향」, 『국문학 연구』제6호, 국문학회, 2001. 11.
임치균, 「조선 후기 소설의 전개와 여성의 역할」, 『한국 서사문학사의 연구』, 경산 사재동박사 화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1995.
임형택, 「17세기 규방소설의 성립과 창선감의록」, 『동방학지』57, 연세대 동방학연구소, 1988.
장시광, 「<방한림전>에 나타난 동성결혼의 의미」, 『국문학연구』제6호, 국문학회, 2001. 11
장효현, 「<三韓拾遺>에 나타난 烈女의 形象」,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제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6.
정병설, 「옥원재합기연 작가 재론:조선후기 여성소설가의 한 사례」, 『관악어문연구』제22집, 서울대 국문과, 1997.
_____, 『완월회맹연 연구』, 태학사, 1998.
_____, 「<옥원재합기연>의 여성소설적 성격」, 『한국문화』제21집,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8.
_____, 「조선조소설과 여성작가」, 『덕성어문학』제10집, 덕성여대 국어국문학과, 2000.
_____, 「한국고전여성소설:연구사와 연구전망」, 『인문과학연구논총』,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2000.
_____,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와 <부장양문록>」, 『고전문학연구』 제19집, 한국고전문학회, 2001.6.
_____, 「조선후기 여성소설과 남성소설의 비교 연구-<옥원재합기연>과 <옥린몽>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제107집,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02.2.
정병헌·이유경, 「여성성의 숨김과 드러남 : 여성영웅소설의 양상」, 『한국의 여성영웅소설』, 태학사, 2000.
정창권, 「조선후기 주자학적 가부장제의 정착과 장편 여성소설의 태동」, 『여성문학연구』창간호,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7.
_____, 「장편 여성소설의 글쓰기 방식」, 『여성문학연구』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조광국, 「19세기 향락상에 대한 평·천민 여성의 자의식 구현의 한 양상-<이춘풍전> <무숙이타령> <삼선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창간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0. 10.

_____, 「2002년도 소설문학 연구동향」, 『국문학회 2003년도 하계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국문학회, 2003. 7.
조혜란, 「<布衣交集> 여성주인공 초옥에 대한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제3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12.
차옥덕, 「<방한림전>의 여성주의적 시각 연구」, 성신여대 박사학위 논문, 1999.
최길용, 「<옥원재합기연>의 작가고」, 『조선조 연작소설연구』, 아세아문화사, 1992.
최호석, 「<옥원재합기연>의 男과 女」, 『고전문학연구』제 23집, 한국고전문학회, 2003. 6.

KCI

The issues and the future prospect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Korean classical novels and women

Lee, Jee-Ha

Recently researches focused on women have been developed in the area of Korean classical novels. The researches have been progressed on a few ways below.

1. Investigation into the possibility about existence of women authors
2. Extraction of women's consciousness
3. Research about the characteristic of women's novels

The researches on the women and novels have been made good progress through this process. However it should be thoughtfully considered subjects below.

1. Consideration about classification of novels related with women
2. Extraction of unbiassed women's consciousness
3. Prudence of generalization of relationships between women's consciousness and modernity
4. Subdivision of subjects about women's novels

KCI